

투데이 칼럼

김정은 옷차림과 선전선동

할 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따라 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옷차림에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최근 경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옷차림은 평소 즐겨 입던 북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공식 연설을 하는 자리에 선글라스를 쓰고 나온 것은 이례적이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떠올리게 충분했다. 야전집배는 생전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 시찰 때 즐겨 입던 의상이었다. 주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모습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떠올렸다고 한다.

북한에는 최고지도자의 옷차림과 액세서리에 관여하는 부서가 있다. 조지지도부와 함께 북한 체제 유지의 앞대 축이라 불리는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주목된다. 선전선동부는 북한의 핵심기관이다.

체제의 존립과 상관있는 기관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철저한 기획과 검열을 통해 최고지도자를 위상화하는 작업을 지휘한다.

최고지도자의 외적인 모습은 지도자의 권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지도자의 패션은 그 자체가 기호이자 언어다.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인 셈이다. 대중의 머릿속에 내재된 지도자의 이미지는 그 어떤 논리나 설명보다 대중에게 강력한 기억을 남기게 된다.

어린 나이, 그리고 짧은 승계 기간으로 권력 기반이 비교적 약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2010년 9월, 3차 당 대표자 대회를 통해 조선중앙TV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전장한 체격에 머리를 짧게 깎고 검은색 인민복을 차려입은 모습은

김일성 주석의 짧은 시골과 똑 닮아 있었다.

2012년 집권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할아버지 이미지를 차용했다. 그러한 면모가 잘 드러난 정치 행사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이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인민복 차림에 가운데 가름미를 타고 나타났다. 어투와 몸짓까지 대중 연설에 능숙했던 김일성 주석을 모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은 그 밖에 조선소년단 넥타이를 매고 기념행사를 치르거나, 흰색 반팔 셔츠 차림으로 논밭을 누비며 현지 지도를 한다. 뽕테 인경과 검은색 양복, 그리고 지팡이까지 김일성 주석이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수없이 노출됐다.

이런 선전선동 기법은 집권 초기 권력 기반을 다지고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전선동은 국제무대에서도 이어졌다.

2018년과 2019년에 열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위원장은 네 번의 정상회담 모두 인민복을 입고 등장했다. 당시 이 북장을 두고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한 번 김일성 주석의 이미지를 들고 나온다. 검은색 긴 코트에 중절모를 쓴 모습은 70여 년 전 김일성 주석의 소련 방문 당시와 같은 차림이었다.

여기에 오른손 절반을 코트 안에 꽂아 넣는 특이한 동작은 생전의 김일성 주석이 선전용 기념사진을 찍을 때 자주 취하던 자세였다. 2019년 을 기점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 지도자들의 이미지를 벗어나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옷차림은 가죽 통코트다. 선대에서는 시도한 적 없는 옷차림이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후 야외 시찰 때마다 자주 가죽 통코트를 입고 등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옷차림과 행동 하나하나에 여전히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설

서거석 '학생중심 미래교육' 선언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전북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최근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해 열심히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의 저서 '학생중심 미래교육'에는 서 전 총장의 교육 철학과 현실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담고 있다는 평이다.

이 책은 △교육 대담 △학생, 교육의 중심에 두다 △교육, 미래의 날개를 달다 △상생, 지역과 함께 가다 △참여, 참여지켜 꽃피우다 △교육현장, 발로 뛰다 △공공직자, 사람의 길을 걷다 △교육, 다시 희망을 노래하다 등으로 꾸며졌다.

교육은 미래를 이루는 밑거름이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훼손된 학생들의 자존심을 어루만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감독과 대립으로 얼룩져 활력을 잃고 침체된 전북교육을 확 바꿔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교육 현장에 활력을 넣고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불통을 소통으로, 대립을 협력과 상생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교육 발전은 지역과의 상생·협력에 관건이다.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지자체,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면서 학교 자치도 대폭 확대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다. 모든 정책의 출발점과 귀결점은 학생을 위한 일이다.

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변화 속도가 무척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미래교육 대전환이 시급하다. 서 전 총장은 교육자의 길을 30여 년 동안 걸어왔다. 1982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15대·16대 총장을 맡아 혁신 대학의 모델을 만들었다.

전북대를 전국 최고 수준의 국립대로 도약시키는데 역량이 매우 컸다. 이번 책 출간을 계기로 자신의 교육 철학과 비전이 잘 전해져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전주평화연합(UPF) 지부 활동

전주평화연합(UPF) 남원시지부장 이·취임식이 최근 남원시 동충동 남원시 통일관에서 거행됐다. 이날 새로 취임한 이석보 지부장은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구현 활동을 하는 UPF 남원시지부장을 맡게 되었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 지부장은 남원시의회 3선 의원, 7대 후반기 의회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남원시회장을 겸하고 있다.

전주평화연합(天宙平和聯合, Universal Peace Federation)은 지구촌 분쟁 종식과 평화세계 실현이라는 가치 아래 문선명·한학자 총재에 의해 지난 2005년 창설되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전주평화연합(UPF)은 UN 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협의 지위'를 가진 글로벌 NGO(비정부기구)로서 전 세계 194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국 19개 광역시도지회와 232개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 활동 중이다. 회원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예술, 언론, 학살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다.

'평화대사(Ambassadors for Peace)'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120만여 명, 국내 5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주평화연합(UPF)은 2005년 창설 이후 국내외적으로 UN과 연대하고 있다.

2022년 2월에는 한반도 평화서밋이 개최되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남북 공동수교 국가 157개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전주평화연합은 공생(共生, Interdependence), 공영(共榮, Mutual prosperity), 공의(共義, Universal values)의 비전 아래 초국가적, 초종교적, 초인종적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시상하러 나왔어요"



오징어 게임의 배우 박해수(왼쪽부터), 정호연, 이정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페어몬트 선추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7회 미국 방송·영화 비평가협회 시상식(크리틱스초이스, CCA)에 시상자로 나서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전쟁 지지하는 세르비아 사람들



13일(현지시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러시아 지지 집회에 참여한 여성이 차림에 러시아 전쟁을 지지하는 알파벳 'Z'를 붙이고 있다. 세르비아는 유럽연합(EU) 가입을 공식 요청했음에도 동맹국인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거부했다. EU 측은 세르비아가 EU에 가입하려면 EU의 외교 정책이 맞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